


 Pan Asia & Africa Universities Association

# PAUA란 무엇인가?

글 원성욱 PAUA사무국장



125년 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못 배운 우리 민족에게 가장 우수한 자들을 보내셔서 많은 학교를 세우고 특별히 대학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헌신을 통해 우리 민족은 영, 혼, 육 모든 면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 뿐 아니라, 많은 학교와 대학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스며들기 시작한 기독교 세계관은 오랜 역사 가운데 불교와 유교와 샤머니즘의 가치관에 묻혀 있던 우리 민족에게 가치 혁명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우리 민족이 오랜 억압의 메임을 끊고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뿌리 깊은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 민족 만큼 단시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된 예는 역사적으로도 거의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주님의 은혜 아래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 열방을 섬기는 자리

20여 년 전 중국의 연변 땅은 깨어나지 않은 중국의 변방에 가난한 조선족이 사는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곳이었습니다. 20년 전 하나님은 중국의 변방 연변 땅에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자로 하여금 연변과기대학(Y 대학)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곳이 중국, 북한, 한국 사이에서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인재들을 길러내는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이 민족을 단시간에 큰 경제적 부흥을 이룬 기적을 창조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을 뿐 아니라, 열방을 섬기는 자리로 초대하신 주님께서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교육 기관과 대학을 세우게 하시고 계십니다. 현장에서는 한류라는 놀라운 열풍을 실감하며 삽니다. 이 시대 한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열방에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섬기라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임을 느낍니다. 이제는 그 토록 가난 속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나라에서 열방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나라로 그래서 이제 203개국에서 85,000명 이상이 한국을 배우기 위해 유학을 오는 나라로 그리고 특별히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깨우는 사명

을 주시고 그곳에 대학을 통해 그 민족과 나라를 변화시킬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대학은 단순히 학문을 가르치는 곳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나라와 민족들은 우리가 이전에 그랬듯이 수백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가치관에 묶여 있고, 그 세계관으로만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학문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그들을 매일 함께 만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 그토록 단단하고 결코 깨지지 않을 것 같던 그들의 견고한 가치관을 깨고 들어가 그들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로 인도하는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장이 선교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도전하는 정신만 있다면

PAUA는 그렇게 세워진 선교 대학들의 연합체 모임입니다(Pan Asia & Africa Universities Association). 현재 11개국에 9개의 설립 운영 중인 정회원 대학과, 6~7개의 설립 준비 중인 준회원 대학이 함께 열방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교 대학을 통해 열방에 길러지고 있는 사람들은 1만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은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선교 대학은 모든 영역, 다양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연합의 장입니다. 대부분의 선교 대학은 교수 자원도 석사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은 경우 초·중·고등학교도 함께 세워져 다양한 분야에 선생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에 한국어를 배우기 원하는 열풍이 불고 있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6개월 한국어 교사 연수 과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선교 대학에는 교회 사역자도, 예배 사역자도, MK 사역자도 필요합니다. 장기가 아니어도, 6개월이나 1년, 단기로 가서 섬길 수도 있고, 준비된 교수님들은 방학 동안에 특강으로도 얼마든지 함께 가르치고 섬기실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여름 겨울 단기팀으로 가서 그 땅의 미래가 될 젊은이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든지 가르치고 섬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한국의 현실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얼마든지 제2의 인생을 사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전보다도 더 가치있고 보람있는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도전하는 정신만 있다면 어느 분야, 어떤 사역으로도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 선교한국의 소명과 은혜를 나누는 자리

PAUA 2011 선교 대회는 이 땅의 젊은이들과 교수님, 전문가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도전하는 장입니다. 선교하는 한국에게 특별하게 맡기신 소명과 그 은혜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서구의 선교사들은 이제 더 이상 선교를 위해 대학을 세우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기회들을 활짝 열어 놓으시고 하게 하고 계십니다.



누가 그런 축복의 기회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키우고 길러내겠습니까?

PAUA 대회는 1월 20~22일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귀한 은사와 탁월한 학문적 능력으로 준비시켜 놓으신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에 여러분들과 기독교 교수님, 전문가 여러분들이 가장 역동적으로 선교에 동참하실 수 있는 장이 어디인지를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각 선교 대학에서 1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함께 됩니다. 그분들의 가슴 벅찬 도전과 감동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나누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수님들과 전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21일에 진행되는 연합 선교 포럼(1/21 09:00~17:30)에 오시면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적 부르심이고, 어떠한 모습으로 앞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 느끼실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께 허락한 재능이 열방의 회복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어질 수 있을지 새롭게 깨닫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참가신청 및 PAUA 둘러보기 : <http://www.paua.kr>